

## 광주 문화수도 조성 정부 의지 안보인다

CT연구원 백지화·사업비 60억 삭감

문화콘텐츠(CT) 기술연구원의 광주 설립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민자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진흥지구 예산도 전액 삭감될 위기에 있어 조성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여기에서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위원장 선안이 6개월째 미뤄지고, 각종 현안에 대한 회의를 세 정부 들어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영택 민주당 의원(광주 서 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공공 부문 기능 통합·재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달 29일 CT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취소했다.

문광부도 산하 콘텐츠진흥기관의 기능 재조정에 대해 업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CT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기능 통합 및 문광부의 콘텐츠진흥기관의 기능

재조정 결과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종합계획에 명시돼 있는 CT연구원 설립이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기획재정부는 공공 부문 기능 통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CT연구원의 명칭을 CT연구센터로 바꾸고 규모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1차 심의에서 광주문화전당 인근 개발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조성 사업 부지매입비 30억원과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지원비 30억원 등 6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가 부지를 매입해 개인 기업에 장기 임대할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208

억원의 예산을 투입, 광주 동부경찰서와 전일빌딩 일대 부지를 매입하고 이를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민자 유치를 유도, 문화산업벤처 타워와 특급호텔을 건립한다는 계획은 시작부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문광부는 투자진흥지구 부지매입 및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 지원비를 재정부에 다시 올려 막판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최종 예산 반영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광주 문화수도 조성 사업과 관련된 현안이 산재한데도 정부에서는 지난 2월 조영택 위원장이 사퇴한 후 6개월째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는 새 정부 들어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한 상황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위원장이 총리 급이라는 점에서 격격자를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현재 후보군 물망에 오른 두 분이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만리장성 성화 봉송** 7일 베이징 외곽 서북쪽에 있는 빠다링(八達嶺) 만리장성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림픽 성화봉송 행사가 화려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金10-10위 '스타트'

베이징올림픽 오늘 밤 9시 개막

한국, 177번째 입장

제29회 베이징올림픽이 8일 밤 8시(한국 시각 밤 9시·이하 현지 시각) 중국 베이징시 북쪽에 조성된 올림픽 주경기장 '귀자티위창'(國家體育場)에서 전 세계 100여개국 정상들과 9만1천여명의 대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16·18·19면>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同一個世界, 同一個夢想)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아시아에서는 도쿄(1964년)와 서울(198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올림픽에는 역대 최다인 205개국에서 1만5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28개 종목에 걸린 금메달 302개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개막식 행사는 8일 오후 5시45분부터 28개의 중국 전통공연이 진행돼 분위기를 띄우며 7시56분이 되면 각국 정상들이 자리를 매운 가운데 카운트다운을 시작, 8시 정각 고대를 릴릭 발사지인 그리스 선수단부터 205개국을 차례로 입장한다. 남북한 선수단은 중국이 표기하는 국명 간 체자(簡體字)의 첫 글자 획순에 따라 177, 182번째로 주경기장에 들어선다.

1만 5천여 명에 이르는 선수와 임

원들이 그라운드에서 입장하면 류치 베이징올림픽조직위(BOCOG) 위원장의 환영사, 자크 로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개회 선언을 하게 된다. 이어 올림픽기가 게양되고 선수와 심판 대표가 페어플레이를 선언하게 되면 지난 3월24일 그리스 올림픽피아에서 출발했던 베이징 성화가 마침내 메인스타디움에 들어오게 된다.

식후행사는 밤 11시30분까지 진행되며 진시황 시대의 병사들과 다민족복장의 다양한 무용수들이 중국의 찬란했던 과거와 현재, 휘황찬란한 미래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된다. 주최국 중국은 안방에 위치한 이번 대회를 통해 내심 최강 미국을 제치고 종합 1위를 꿈꾸고 있다.

한편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해 2회 연속 세계 10위 이내를 지상 목표로 세우고 있는 한국 선수단은 7일 카메룬과의 축구 첫 경기를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했다. 한국은 양궁과 태권도에서 최소한 5개 이상의 금메달을 확보하고 유도, 레슬링, 역도, 수영, 배드민턴, 탁구, 체조 등에서 '금맥 캐기'에 성공해 톱 10을 유지하며 일본과의 아시아 2위 경쟁에서도 승리한다는 전망이다.

/김영욱기자 wool@kwangju.co.kr

## 한은 금리 인상 ... 연 5.25%

서민가계·중소·건설·유통업계 타격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나 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5.00% 수준에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 총액한도 대출금리를 연 3.25%에서 3.5%로 상향 조정했다.

기준금리가 5.25%로 오른 것은 2000년 10월5일~2001년 2월7일(5.25%) 이후 처음으로, 통화정책의 직접적 대상이 통화량에서 금리목표로 바뀐 지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

치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높은 물가 상승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될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은행의 대출이자 상승으로 연결돼 주택담보대출 등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자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과 주택경기 침체 및 내수부진을 겪고 있는 건설업, 유통업 등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은행들이 일제히 예금금리를 올렸으며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와 물가상황에 따라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종태·최경호기자 jilee@kwangju.co.kr

## '무인헬기' 전남 농업 효자 됐다

장성 등 7대 일손 부족 해결 ... 4대 추가 구입 서둘러

농업용 소형 무인헬기가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덜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에 보급된 무인 헬기는 2005년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북산안농협, 안와농협, 고흥 풍양농협, 순천 광역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등 모두 7대에 달한다.

또 장흥 탐라이스탄지와 구례군 등이 새로 4대를 구매 추진중에 있다.

고흥 풍양농협은 지난달 21일부터 무인헬기 3대로 포두면 해장만 간척지 친환경농업단지 10

개 지구 650ha에 친환경 자재인 '키토산'을 살포했다.

장성군 역시 진원·남면 등 관내 친환경 쌀 생산단지 630ha를 중심으로 친환경 방제를 실시했다. 지난 한해 무인헬기를 이용한 전남지역 방제 면적은 3천200여ha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인헬기는 살포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데다 동시에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어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회 살포에 드는 비용은 3.3㎡당 25원이며 작물의 3~5m 높이에서 시속 15~20km로 날며 1



시간당 10ha(3만평)에 비료나 농약을 뿌릴 수 있다.

김중권 고흥 송산지구단지 대표는 "인건비가 매년 오르고 있는데다 농촌 고령화로 적기에 사탕 구하기도 쉽지 않다"며 "무인헬기 이용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와 영농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26 / 062-222-8111

10215300-9318